WSJ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이데일리' 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는 18~19일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내년 통화정책과 관련해 관망 모드로 전환한다는 시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연준은 여전히 내년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WSJ는 그들은 금리를 얼마나 빨리, 많이 올려야 하는지,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많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 증시시장의 급락은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다는 연준의 자신감을 크게 꺾었다. 여기에 최근 몇 개월간 물가상승률이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유가 역시 급락하면서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낮아졌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이날 "세계 성장은 둔화하고 있고 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며 "중앙은행이 가진 도구 중 하나인 참을성이라는 도구를 현재 사용할 시기" 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에 따른 효과가 약해지고 있어 내년 상반기 경제가 현재가 매우 다를 가능성이 있다." 며 "국채 금리 곡선이 평탄해지는 것 역시 향후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 현재의 미국 경제상황을 조명이 환한 거실에서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것에 묘사한 바 있다. 갑자기 길이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좀 더 천천히 움직이듯이 통화정책 역시 신중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 금리가 중립으로 추정되는 수준의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다." 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도 한 바 있다.

WSJ은 11월 고용데이터가 미 연준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한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애플·MS, 세계 1위 시총 기업 놓고 3파전

아마존닷컴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세계 1위 시가총액 기업이라는 왕좌를 놓고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이투데이' 가 CNBC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아마존은 3일 뉴욕증시에서 장중 한때 주가가 5.2%까지 치솟으면서 애플과 MS를 제치고 세계 최대 시총 기업에 올랐다. 그러나 종가 기준으로는 애플이 8,770억 달러 시총으로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아마존이 8,66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고 MS는 8,604억 달러로 두 기업 뒤를 바짝 추격했다.

MS가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에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시총 1위에 오르는 등 이들 3개사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기술주들이 올가을 부진에서 벗어나 다시 상승 추세를 타고 미·중 무역 전쟁이 90일간의 휴전에 들어가면서 이들 세 기업의 글로벌 대장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CNBC는 전망했다.

애플은 지난 8월 초 세계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1위 자리를 확실히 굳히는 듯 했다. 그러나 애플이 9월 마감한 2018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아이폰 판매 성적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촉발했다.

이후 애플 공급업체들로부터 잇따라 아이폰 판매 둔화 징후를 나타내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애플 주가는 지난달 52주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해 약세장에 진입했다.

아마존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마존은 9월 초 시총이 장중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미 약한 실적 전망과 10월 글로벌 증시 혼란 등으로 애플과 마찬가지로 약세장에 진입했다.

MS는 핵심 사업인 윈도와 오피스 등이 건재하고 성장사업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경영전략이 적중해 애플, 아마존보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정적이어서 다시 시총 1위 경쟁에 뛰어들 수 있었다.

미국 부동산 시장서 발 빼는 중국 투자자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5일 '매일경제' 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올해 3분기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매도한 총액이 1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중국 투자자가 미국 부동산을 매수한 금액은 2억1,300만달러에 그쳤다. 1분기와 2분기 중국 투자자들이 각각 40억 달러와 10억 달러 이상 미국 부동산을 사들였던 것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실히 끊긴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에서 발을 빼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중국 경기 불안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 여파로 위안화 가치가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통화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해외 투자자금의 자국 내 유턴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민간기업에 부채를 줄이라며 해외 부동산 매각을 압박했다. 그린랜드홀딩그룹과 HNA(하이난항공)그룹 같은 중국 기업들도 당국의 압력에 못 이겨 구매했던 미국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분기에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굵직한 부동산업체들의 '팔자' 행진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국 다롄완다그룹은 고급 부촌을 만들기 위해 구매했던 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 용지를 4억2,000만 달러에 매각했다. 매수세를 떼어놓고 봐도 중국의 투자 열기가 식은 것을 알 수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본토와 홍콩 자본의 미국 부동산 투자액은 44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8억1,000만 달러)보다 30%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5년여간 중국인이 공격적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중국은 당국의 외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후 미국 부동산 매수에 열을 올렸다. 이 때문에 최근 추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KELLERWILLIAMS SHORELINE
BRE #02036043
714-822-0345
3030 Old Ranch Pkwy. #400
Seal Beach, CA 90740
yeetakre@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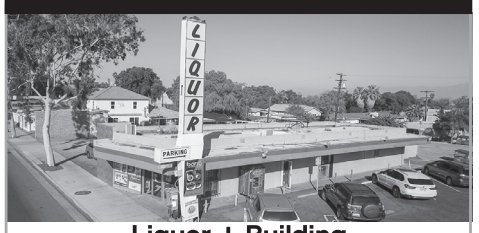
Yee Tak (탁 이석)
Economics and Certicate in Quality Analysis at Arizona State
건국대 경영학과

주택 / 커머셜 / 인듀스트리얼 – 1031 Exchange

부동산에 대한 모든것!
500명이상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정확한 통계 분석과 네고를 통한 최고의 가격 판매와 최저가 구매

Corona Down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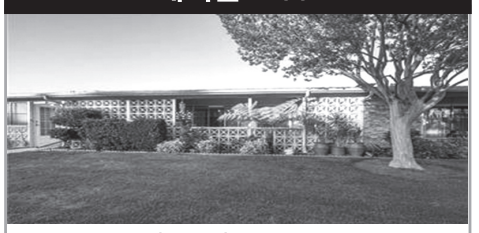


Liquor + Building
Liquor $250,000 + Building $800,000
+ Inventory = 총 $1.05M + Inventory
리커 매상 3만 넷 1만.
첵캐싱(볼륨 1M) + 로또 = 넷 1만
총 넷 2만. 인벤토리 약 3만. SBA융자 가능.

Cypress
Sorrento

방 4–화 3 2,541sq
Cypress High 학군
Oxford Academy 보도거리
사이프레스내에 가장 선호받는 소렌토 커뮤니티
$1,035,000

실비치
레져월드 55+



방 2 – 화 1 900 Sq
다양한 편의 시설
편리한 교통을 갖춘 최고의 시니어 단지중 하나인
실비치 레져월드 입니다.
$228,900